



김군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 추진해

국가전체 481만toe에 해당하는

약 1조 4400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기대

에너지절약축진대회는 그동안의 에너지절약 성과를 결산하고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사업의 나아갈바를 살피고 절약의 지를 다지는 자리로 에너지부문에 있어 연중 최대의 행사로 손꼽힌다.

특히 올해의 경우 초고유가가 지속돼 사상 최초로 에너지수입금액이 6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이 다른 어느해보다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제27회 에너지절약축진대회를 맞아 에너지관리공단 김군섭 이사장을 만나 에너지절약 축진대회가 갖는 의미와 올해 수상자 선정에 비롯해 심사과정 및 평가기준등에 대해 들어봤다.

▲제27회 에너지절약축진대회의 의의와 특징은 무엇인지.

-올해는 작년에 이어 초고유가가 지속되는 바람에 에너지수입금액이 전년대비 20%증가된 6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어느때보다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 에너지종사자는 물론이고 교사, 공무원, 가정주부등 온국민의 에너지절약 의식과 실천노력도 보다 활발했던 한해로 올해의 에너지절약 축진대회가 갖는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

▲올해 에너지절약 축진대회의 포상대상 및 내역은?

-고유가에 대응한 산업부문의 집중적인 에너지절약 사업추진으로 작년에 이어 역대 최다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올해는 금탑산업훈장이 없는대신 (주)포스코 허남석 전무와 (주)케너텍 정복임 대표이사등이 공동으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철탑, 석탑등을 포함한 158명의 에너지절약 유공자가 훈포장 및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도 고유가로 에너지절약 정책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올해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추진경과와 결과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원천적인 에너지절약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에너지원 단위개선 3개년 계획'을 추진해 국가전체로 481만toe를 절약해 약 1조 4400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자발적협약 확대와 ESCO제도의 활성화, 기술건설팅사업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했으며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나갈수 있도록 올한해만해도 약1조원에 이르는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도 10%까지 확대했다.

수송부문에서는 자도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제도를 준비하고 첨단도로교통체계(ITS)를 확충했다. 민생부문에서는 열병합발전과 집단에너지의 보급확대, 가전기기의 최

저효율기준을 강화하는등 88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에너지효율관리제도를 통해 한해 5000억 원 이상의 에너지비용을 절약함과 동시에 가전제품과 사무기기의 효율향상은 물론 국제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밖에도 올해 7월에는 2010년까지 모든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W이하로 하기위한 국가 로드맵을 마련해 기기 제조업체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를 추진했다.

향후 공단은 지속되고있는 고유가와 교토의정서의 발효 등 국제에너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에너지절약'임을 다같이 인식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상자에게 당부할 말은?

-먼저 그동안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력해 이번에 수상의 영예를 얻은 여러 에너지절약 유공자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며 각분야에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이용합리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에너지환경속에서 경제발전을 이어나가야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계석유수요 증가와 중동지역 불안의 장기화로 인한 구조적 고유가시대 도래 및 교토의정서의 발효 전망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압력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안정된 자원확보를 위한 선진국들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소비형으로 굳어진 우리의 에너지소비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수 없음을 인식해야한다.

이번에 에너지절약 유공자로 포상을 받으신 분들을 비롯한 에너지부문 종사자 여러분은 우리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계신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과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